

‘슈·퍼·우·먼’·과 ‘악·한·남·자’·가·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일본 남성이 본 우리사회는 아직도 유교적 남성중심 사회임에도
여성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한, 언뜻 보기에 모순된 사회다.
나이들수록 약해지는 중년 남성과 반대로 여성은 갈수록 거세어지는

이 모순구조는 사실 지나친 남성중심 사회가 낳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글·오까다 오사무(연론인)

필자 오까다 오사무(岡田理)는 일본 미에현 출신으로 일본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고 저널리스트로 활약해왔다.

87년부터 우리나라에 머물러온 그는 한국인의 삶, 특히 여성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영화와 만화에도 조예가 깊어
번역 작업과 평론까지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발행하는 주간 〈코리아 파노라마〉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일본과 한국의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한편 중앙대 외국어 교육원 일어강사로 일하고 있다.

처음 한국에 살게 되었을 때, 보통 한국인의 생활을 체
험해보고 싶어 연세대 가까이서 하숙을 했다. 공무
원을 정년퇴직한 아저씨와 그 부인이 치는 작은 하숙집에
서 아직 한국어도 서툴렀던 당시 나는, 그 하숙집 주인부부에게
일일이 신세를 지어야만 했다.

물론 한국에도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
다. 내가 있던 하숙이 한국가정의 대표적 예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
만, 그러나 이 하숙집 사람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한국인의 사고방
식, 생활방식 등에 대해 좀 더 속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

무기력해지는 중년 남성

무엇보다도 흥미 있었던 것은 그 가정이 실제로는 아주머니를 중
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하숙든 사람의 뒤치닥꺼리나 요리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 집 수리를 한다든지, 아들의 결혼 상담과 그 준
비 등... 그 집에 관한 것은 사소한 가정문제부터 대외적인 것에 이
르기까지 거의 전부를 아주머니가 도맡아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주머니가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서 이제 공식적인 장이
열리면 아저씨는 아주머니가 준비해 놓은 자리의 중심에 앉는다.
어떻게 보면 아저씨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듯이 보이지만 그렇



지가 않다.

아주머니의 협력이 없으면 아저씨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는 한국 가정에서 아주머니(중년여성)의 힘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한국은 유교사회로 남존여비의 남자 중심 사회라고 들은 나는 처음에 그것이 의외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가정에서 여성쪽이 강해지는 경향은 사실 일본에도 있다. 그렇지만 질적으로 다르고, 무엇보다 한국 정도는 아니다. “일본 여성만큼 남성에게 정성을 다하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는 한국 사람도 많이 믿고 있는 ‘신화’(神話)를 나는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엔 아직도 남성의 존재감이 있는 편이다.

한국 경우 중년이 되면 여성은 점점 강해지고, 반대로 남성은 점점 무기력해진다. 예를 들어 한국 서민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텔레비전 프로인 KBS의 〈전국 노래 자랑〉에 출연하는 중년 아주머니들의 활기찬 모습이란! 떨지도 않고 의연한 태도로 마치 정열이 전신에 넘쳐 흐르는 듯하다.

그런데 어쩐지 중년 남성들은 태도도 하나같이 소극적이고 나약하며, 좀 억지부려 표현하자면 ‘여성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처음

에 나는 그것을 기묘하게 생각했으나 하숙집 아주머니를 보면서 차츰 이해하게 되었다.

남존여비의 ‘남자중심 사회’ 현상과 이러한 현상은 언뜻 모순처럼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다. 혼인하여 10년, 20년이 지난 남성이 급속히 ‘무기력’해지는 현상은 사실 한국의 ‘남자 중심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 그 자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양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아저씨는, 어머니 손을 빌리지 않으면 혼자서 옷도 못입는 어린애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안되는 어린아이처럼 하숙집 아저씨도 아주머니가 밥 지어주는 것이 늦으면 그저 잠자코 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가련한 존재일 뿐이다.

그래도 아직 남편이 매달 월급을 받아오는 동안은 한 집안 주인으로서 위엄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하숙집 아저씨처럼 정년 퇴직을 하고, 집안 수입을 하숙생에게 의지하게 되거나 했을 때는 집안의 실질적 중심으로서 권위는 완전히 아주머니쪽으로 이동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아저씨는 법적인 일 등 공식적 자리에서 가장 노릇을 연기하는 이외에는 거의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남자 일, 저것은 여

자 일이라고 '성적인 역할분담'을 계속 강요당해왔다. 말하자면 회사에 가는 것은 아버지 일, 밥을 짓거나 빨래를 하는 것은 어머니 일이라는 식으로...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요즘 맞벌이가 늘고 있고, 사실상 그러한 '성적 역할분담'의 의미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식은 여전히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기존 사고 방식에 젖어 있다. 실제와 관념의 간격은 더 넓게 퍼져 있는 가운데, 이를 자각하지 못한 남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 아닐까.

맞벌이하기 힘든 나라

일본에서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걸쳐 맞벌이 부부가 급속히 늘어난 것처럼 한국에도 혼인해서도 계속 일하려는 여성들이 현재 급속히 늘고 있다. 내가 강사로 있는 대학의 여대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아도 오로지 결혼만을 꿈꾸는 여대생은 극히 드물었으니까.

남성도 예전처럼 부인에게 무조건 집안일만 시키고 싶다는 사람이 이전에 비해 훨씬 줄은 듯하다. 물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라는 조건이 붙는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구입자금을 빨리 모으려는 경제적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든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의식의 변화는 현저하게 눈에 띈다.

그런데 실제로 맞벌이를 시작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 기업 자체가 결혼한 여성이 계속 일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궁극적으로 불충분하다. 물론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부 직종은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 회사는 아직 여성의 일을 그저 보조 작업으로서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여성은 단지 값싸고 장기간 일해주는 노동력으로서 최고일 뿐, 그러한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별로 필요 없다는 주의다. 단지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변하는 여성의 용모 때문에 여성이 오래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점잖은' 기업도 적지 않다.

둘째, 정부나 행정기관 역시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아주 희박하다.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해서 한국도 '남녀고용평등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남녀 고용 기회가 균등하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얼마전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모두 여성 정책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그것은 단지 여성표를 모으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혼인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고 결심하면 남편의 이해나 협력을 얻어야 할 텐데, 한국 남성(남편)의 이해는 형편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상 세가지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 즉 기업과 정부쪽은 겉으로는 곤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고방식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기업이 이 숨막히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여성의 능력을 자유로이 끌어내어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남녀의 고정화된 직종만을 가진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정부 당국자들도 개별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 여성의 능력을 지금처럼 그저 방치해 놓지 않으려고 신경쓰고 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움직임으로 보아서 결국 기업도 정부도 점차로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번째 들었던 남편(남성)의 이해를 얻는 문제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계속 일하려는 여성은 가까워서 더욱 밀어주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과 가족의 협력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불행히도 한국의 현실이다.

홀로 남는 남자들

사실 내가 한국에서 하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일 놀란 것은 하숙집 아주머니가 하숙생들의 빨래까지 해준다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고향을 떠난 학생들은 우선 작은 방을 빌려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저 방만 빌릴 뿐 식사 청소 빨래는 남자는 여자는 자신들이 해야한다. 부족한 돈으로 슈퍼마켓에 가서 신문 전단지에서 나와있는 값싸보이는 재료를 사와서 간단한 요리를 해보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자신이 만들고, 또는 자신이 더럽힌 물건을 자신이 닦는 체험을 통해 그들은 독립성과 사회적응력을 키우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간다.

그런데 내가 체험한 한국 하숙에서는 전혀 그런 메커니즘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그저 식사시간이 되면 하숙집 식당에 모여 하숙집 아주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는다. 다 먹고나면 "잘 먹었습니다" 말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간다. 자기가 먹은 식기를 닦는 체험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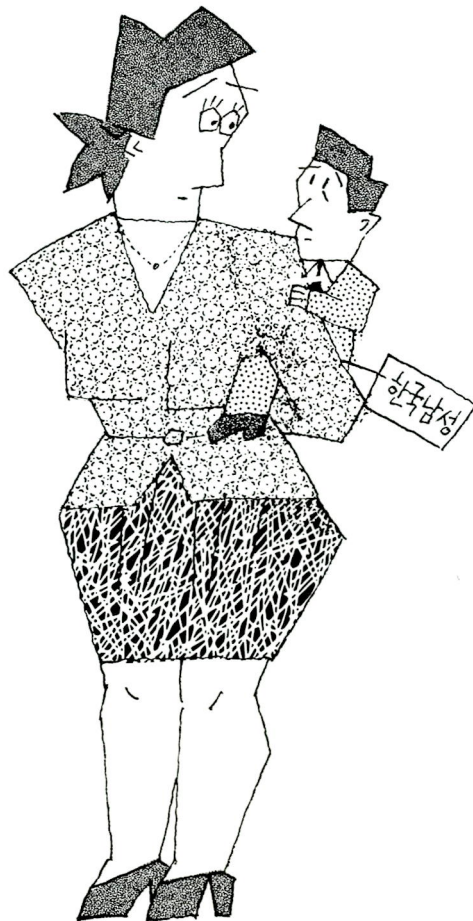
흥미로운 것은 여대생도 거의 같다는 것. 내가 본 한국의 젊은 여성은 혼인하기까지 별로 집안일을 하지 않는 듯하다. 마치 그런 것은 전부 어머니 일(또는 하숙집 아주머니 일)로 정해져 있더라도 한 듯이 말이다.

물건 값을 물어보아도 호프집 맥주 값이나 노래방의 노래 한국 값은 알고 있어도 배추나 돼지고기, 쇠고기가 한근에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것이 수험공부 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나는 현재 한국 가정교육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정도는 여성의 권리 획득이나 지위 향상과 비례한다고 여겨지고,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성의 협력이나 이해가 없을 경우, 여성은 일과 가사라는 이중 노동을 강요받게 되어 더 심한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한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도 같다. 그 결과 10년 사이 일본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사회 진출뿐 아니라 오히려 남녀의 '성적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남녀 성차(性差)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것은

한국에서 처음 하숙하며
놀란 것은 하숙집 아주머니가
하숙생 빨래까지
해준다는 사실이었다.
일본에서는 고향을 떠난 학생은
남자든 여자든
식사 청소 빨래는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
자신이 먹을 음식을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더럽힌 물건을
자신이 닦는 체함을 통해
독립성과 사회적응력을
키우며 어른이 되어간다.



남자 일, 저것은 여자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다.

요리나 청소는 물론이고 모든 가사일에서 이런 고정관념은 무너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는 것은 확실히 여성의 일이지만 육아는 남녀가 분담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 식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에 반해 많은 남성들의 의식은 구태의연하다. 그 결과 일본에서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결혼하지 않는다)는 여성이 늘고 있는 한편 결혼(하고 싶지만)할 수 없는 남성이 늘고 있다.

비록 더디지만 이전에 비해 여성의 사회 진출 조건이 좋아지고 있고 여성에게도 경제력이 생기면서 여성들은 반드시 예전처럼 결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결혼은 사랑이라는 측면과 함께 여성에게 '취직'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일하며 남편 시중을 드는 이중의 고역(苦役)에 시달리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혼자 즐기며 사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여성

이 나타나는 것도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일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한국에서는 요즘 이런 의식이 퍼지고 있다.

비극이지만 남녀의 의식에 점점 격차가 생기고, 결국 남성들은 이러한 시대 상황에 뒤떨어져서 홀로 남는 현상이 벌어진다. 한국 하숙집 아저씨나 아주머니, 또는 일본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처럼 기성세대 경우에는 그 의식의 격차는 더욱 깊게 침전되면서도 부부 관계가 파괴되는 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신적으로 격차가 생긴 남녀를 무리하게 붙여 놓으려는 사회적 '압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남녀의 의식차가 빚어내는 갈등이 이미 심각하다. 남 존여비가 심한 한국에서는 아직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표면화되면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아니, 지금 그러한 상황은 벌써 시작되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